

출애굽기 12장 21-28절

고난의 기억, 현재의 감사, 미래의 소망

유월절 / 미래에 대한 소망

한줄요약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며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자

도입

고난은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나 겪습니다. 이 과거의 고난은 다시 생각하기 싫지만 우리는 이 고난을 생각하며 현재에 감사하기도 하고 고난을 토대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미래를 설계합니다.

1) 유월절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고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미래의 소망을 두게 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이 지키는 가장 큰 명절로 무려 3천5백년이나 지킨 절기입니다. 유월은 넘어가다, 뛰어넘다 라는 뜻으로 애굽의 10재앙 중 장자 재앙과 관련하여 주어진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의 피인데 해질 때 양을 잡아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릅니다. 이는 밤에 하나님이 애굽의 처음 난 것을 치시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할 때에 피가 있는 집을 넘어갑니다. 이 피는 구속의 의미를 가지며 하나님은 이 때를 기억하고 기념하여 여호와와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며 바로의 장자까지 치십니다. 이는 애굽에게나 이스라엘에게나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고대사회에서는 신의 명분을 빌려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 중에서 애굽의 최고신 라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애굽의 장자가 애굽의 기준에서 이름 모를 신에게 죽었다는 것은 애굽에겐 충격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신이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 사건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구원 사건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 애굽에서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기억하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어갑니다. 무엇보다 이 구원 사건에서 어린양의 피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유월절의 어린양은 모형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도바울은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양으로 부릅니다.

2) 미래에 대한 소망

이 유월절의 의미는 단순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한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 정치적인 해방도 중요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연관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이 바로의 노예로 살았듯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양이 되어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을 세상의 것에서 한 발자국 더 앞서 세상의 것 너머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실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현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출애굽을 했으며 이전 세상이라는 광야를 걸으며 약속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건널 때처럼 고단하며 상당한 유혹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가시며 그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를 실시간으로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17절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 이웃사랑

한줄요약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자

도입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이 최대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고 애굽을 나왔지만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1)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우리, 번개, 뾰뾰한 구름, 불, 연기, 나팔소리와 함께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요약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죄악된 우리가 의로워 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 등 모든 것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쉽게 말해보자면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를 닮기 위해 그의 생각을 알고 싶고 그의 행동 말투, 습관, 스타일 등 모든 것을 따라하려 합니다. 이로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른다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 가는 통로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은 거짓이라 말씀하시며 그들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결코 범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라는 점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현재도 다른 것들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우상은 현실로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들 즉 하나님 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도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들과 가까워짐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하라 하시며 예배의 자리에 모여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2) 이웃 사랑

인간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 바로 인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지음 받은 인간과 인간의 만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5계명 부터는 부모공경, 살인금지, 간음금지, 도둑질 금지, 거짓말 금지,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 금지를 같은 인간대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이고 쉬워보이는 이야기지만 지키기 힘든 이야기들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십계명의 핵심은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계명을 요약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눈 것을 보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의 요구입니다. 이 사랑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자유케 함을 넘어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기초하며, 진정한 자유는 무조건적인 자유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법과 질서가 없이 자유를 누린다면 다른 사람의 자유가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여 피해를 입는 상황을 자유롭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듯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를 막아줌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림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십계명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를 얻는 길을 말해주는 법이라 말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을 느낄 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엑스포지멘터리 출애굽기, 저 송병현, 서술로서의 모세오경 하, 저 J.H 세일해머, 대망의 책

출애굽기 24장 1-11절

언약백성

하나님과의 언약 / 언약의 피로 사신 예수님

한줄요약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기 위해 언약을 맺으셨다. 우리는 이 언약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도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에게 참 예배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다양한 율법을 알려주시며 가나안을 정복 이후 지켜야 할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 중점이 되는 이야기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절대로 가나안의 다른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1) 하나님과의 언약

오늘 본문 24장에서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이 산으로 올라가 멀리서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 모세와 독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는 산 정상에 올랐고 다른 사람들은 모세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기 백성과 모세의 언약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며 언약서라 불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 앞에 다시 말합니다. 이 율례를 들은 후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기로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위에 아직 남아있는 절반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드디어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언약은 혼자만이 체결할 수 없습니다. 양쪽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제시한 말씀을 행하고 순종할 것이라는 고백위에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2) 언약의 피로 사신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동물의 피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죽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죄를 대신 지어 줄 짐승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희생제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과의 교제하기에 앞서 짐승의 피는 필요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보혈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하고 영원한 새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을 삼기위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은 상호 동의가 있어야 체결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신뢰하며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우리를 언약의 피로 사셨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또한 언약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백성이 죄 가운데 살길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백성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약백성으로써 그 말씀을 지키기로 동의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죄 가운데 살아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라도 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의의길로 인도해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하며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 교회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하며 예배에 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언약하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길 축원합니다.

출처: 엑스포지멘터리 출애굽기, 저 송병현, 출애굽기 산책 박철현 저, 대망의 책 김영옥 저

출애굽기 34장 1-9절

먼저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

언약 갱신 /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한줄요약: 하나님은 늘 죄짓는 우리를 보며 아파하시고 용서하시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신다.

도입

우리 인생에서 호의를 주었는데 계속해서 배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인간관계 정리는 물론 한 대 때리고 싶을 겁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은 32장부터 시작된 이야기 바로 금송아지 사건의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자마자 금송아지로 우상숭배를 하며 이 언약을 어기고 배신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며 하나님은 응답하셨으며 34장에서는 다시 하나님은 은혜로 언약이 체결 됩니다.

1) 언약갱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여 두 돌판을 처음 것과 똑같이 만들 것을 명령합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으나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직접 준비합니다.

이 두 돌판이 상징하는 바는 첫 번째 깨진 돌판은 언약의 단절을 상징한다면 두 번째 돌판은 회복을 상징합니다. 이 돌판을 준비한 모세를 하나님은 다시 만나주시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는 급히 하나님께 엎드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기원으로 삼아달라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이라도 친히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이는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먼저 언약을 깨버렸고 여기에는 어떠한 변명도 필요없이 버려질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홀로 언약을 회복시켜주십니다.

이렇게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며 사랑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현재 우리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늘 죄를 짓고 실패하여 넘어지지만 언제나 생각하게 하시어 먼저 손을 잡아주시는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곁에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참 행복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왜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은 상태여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또한 모세와 함께 부재함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광야에 덩그러니 남겨져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은 옛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옛것은 바로 우상숭배라는 최악의 죄였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신다 하셨고 친히 언약을 맺으셨으며 10재앙과 광야의 일들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이셨음에도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자 현실이라는 세상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당연히 세상의 것을 찾게 되었고 그것은 죄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들에게 오셔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고난을 이기려 합니다. 그러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여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위로해주시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고민과 고난은 더 이상 고민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출처: 엑스포지멘터리 출애굽기, 저 송병현, 출애굽기 산책 박철현 저, 대망의 책 김영옥 저

출애굽기 40장 34-38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안으로 /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한줄요약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런 계획을 목격할 수 있다.

도입

고대 신들의 특징은 한 곳에 머물러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신전을 짓고 어떤 산은 그 신이 임재하는 특별한 의미의 신이 되며 사람들은 그곳으로 경배하러 갑니다. 찾으러 가지 않는다면 그 신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신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시내산에서 임재하셨지만 시내산에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과 함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범죄하였습니다.

1)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안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완성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세는 시내 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제는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막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나타납니다.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추운 광야의 특징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신 것 또한 우리에게 맞춰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필요에 따라 많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그 채워주심을 은혜로 누리지 못한다면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목격하고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에도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성막은 이스라엘이 광야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하심을 직접 누릴 수 있는 장소이며 언제 이동하고 언제 머물고 쉬는지를 표시해주는 지표가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예비하신 것을 누리면 됩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목적지로 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2)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이렇게 구약의 시대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함께하심을 친히 목도하고 체험합니다. 이는 앞으로 끝없는 광야 여정을 거쳐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은혜와 위로의 증표였습니다. 신약의 시대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오셔서 순종하는 자들의 선한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며 여정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가운데 친히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출처: 엑스포지멘터리 출애굽기, 저 송병현, 출애굽기 산책 박철현 저, 대망의 책 김영옥 저